

마르크스의 利潤率 低下 傾向의 法則⁽¹⁾

金 秀 行

자본주의적 생산은 利潤을 얻기 위한 생산이기 때문에 이윤율은 생산의 動力이다.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에 관해 오랫동안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론』 제3권 제3편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사실상 매우 단순하다. 자본축적에 따라 자본의 技術的 構成이 상승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잉여가치를 낳는 노동자를 잉여가치를 낳지 않는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傾向을 만들어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가치율의 상승과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를 통해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을 만들어낸다는 점, 그런데 이 두 개의 대립하는 경향들은 이론적으로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축적에 따라 이윤율이 분명히 저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 끝으로 두 경향들의 衝突이 공황이나 자본의 집중과 집적 등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본론』의 草稿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1861-63년의 초고 『제3장. 자본과 이윤』 그리고 『잉여가치학설사』 등에서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분명한 저하를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본론』에서는 이 결론을 받아들여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위와 같이 정립했다고 말할 수 있다.

1. 머 리 말

마르크스는 엥겔스가 편집해 1894년에 발간한 현재의 『資本論』 제3권 제3편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편은 제13장 ‘法則 그 자체’, 제14장 ‘상쇄 요인들’ (counteracting influences), 그리고 제15장 ‘법칙의 內的 矛盾들의 展開’로 이루어져 있다.⁽²⁾ 그런데 엥겔스가 편집할 때 사용한 ‘第1草稿’ (1865년 씀)에는 제3편의 제목이 ‘사회적 발전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경향’ (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 with progress in society)⁽³⁾으로 되어 있고 章과 節의 구별이 전혀 없었고[佐藤金三郎(1971), Marx and Engels(1992)], 내용에서는 현재의 제3편과 차이가 없었다[松尾純(1993)]. 따라

(1) 이 연구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2) 이 글에서 인용하는 『자본론』은 비봉출판사 번역판(김수행 옮김)에 의거한다. 제1권(상)은 Marx(2001a)로, 제1권(하)는 Marx(2001b), 제3권(상)은 Marx(2004a), 그리고 제3권(하)는 Marx(2004b)로 표기한다.

(3)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보낸 1868년 4월 30일자 편지에 있다[Marx and Engels(1983, p. 137)].

서 현재의 제3편이 엥겔스에 의해 그 내용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

아직까지도 論爭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은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3편에서 과연 “이윤율이 長期的이든 短期的이든 실제로 저하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證明하거나 豫測하려고 했는가이고, 나아가 제3편이 과연 이윤율의 현실적 저하를 증명하거나 예측하는 能力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윤율의 저하 여부에 관한 최근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면서 파인(Ben Fine)과 해리스(Laurence Harris)의 견해가 제3편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엥겔스가 제3편을 세 개의 장으로 구분한 것이 正-反-합의 辨證法에 익숙한 마르크스의 서술방법을 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제3편은 자본축적에 따라 나타나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제13장)과 상승 경향(제14장)을 설명하면서 이 두 대립적인 경향들의 충돌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제15장)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3편은 이윤율이 현실적으로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자본론』 以前의 저작들에서는 마르크스가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이전의 저작들에서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저하를 이론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본론』에서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상승 경향 사이의 모순들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게 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제15장은 공황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제15장 자체의 검토는 다른 곳으로 넘긴다.

2. 利潤率의 低下 與否 論爭

2.1. 利潤率의 公式

제3권 제3편에서 말하는 이윤율은 社會的 平均利潤率 또는 一般的 利潤率인데, 總資本이 노동자 전체로부터 일년 동안 착취해 실현한 剩餘勞動(=剩餘價値)을 資本投下總額으로 나누면 年間利潤率이 나온다. 記號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4) 엥겔스는 제3권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3권의 편집작업은 제2권의 편집작업과는 매우 달랐다. 제3권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매우 불완전한 초고[이것을 엥겔스는 ‘주요원고’(major manuscript)라고 부르고 있는데, Progress Publishers는 이 원고를 ‘제1초고’라고 부르고 있다: 역자]가 있었을 뿐이다. …그 다음의 세 개의 편들[제2편, 제3편, 제4편: 역자]에 대해서는 문장 상의 편집 이외에는 거의 완전히 주요원고에 의존할 수 있었다”[Marx(2004a, p. 4, 7)].

c : 不變資本 投資額;

v : 可變資本 投資額;

T : 固定資本의 年間回轉數;

t : 流動資本의 年間回轉數;

s : 流動資本의 1回轉時間에 生産되어 實現된 잉여가치;

r : 年間利潤率.

그러면 연간이윤율(r)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1) \quad r = \frac{st}{c+v} = \frac{t(\frac{s}{v})}{\frac{c}{v}+1} = \frac{T(\frac{t}{T})(\frac{s}{v})}{\frac{c}{v}+1}$$

연간이윤율은 實質剩餘價值率($= s/v$), 자본의 價值構成($= c/v$),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의 연간회전수($t, T, t/T$)에 달려 있다. 각각의 變數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실질잉여가치율이 상승하면 이윤율이 상승하고, 자본의 가치구성이 상승하면 이윤율은 저하하며, 고정자본이나 유동자본의 연간회전수가 증가하면 이윤율은 상승하고, 유동자본의 연간회전수가 고정자본의 연간회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이윤율은 상승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 마르크스가 구분한 자본의 가치구성, 有機的 構成 그리고 技術的 構成을 좀 더 자세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의 構成은 두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價値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이 구성은 자본이 불변자본(즉 生産手段의 가치)과 가변자본(즉 勞動力의 가치 또는 임금총액)으로 분할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素材의 측면에서 고찰하면, 어떤 자본이든 생산수단과 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분할되는데, 이 구성은 사용되는 생산수단의 量과 이 생산수단의 활용에 필요한 勞動量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나는 전자를 자본의 가치구성(value composition)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자본의 기술적 구성(technical composition)이라고 부른다. 兩者 사이에는 긴밀한 상호관계가 있다. 이 상호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나는 자본의 가치구성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해 결정되고 또 기술적 구성의 변화를 그대로 反映하는 경우, 그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organic composition)이라고 부른다[Marx(2001b, pp. 836-837)].

기술적 구성은 생산과정에서 기능하는 생산수단의 양과 노동자 수 사이의 비율이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기술적 구성을 고도화하면 생산수단과 생활수단(따라서 노동력)의 가치는 균등하거나 불균등하게 저하할 것인데, 이런 가치 변화를 고려한 것이 가치구성이고 이런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유기적 구성이다. 이것을 기호로써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P_c : 불변자본 要素들의 단위당 가치; \overline{P}_c : 기술적 구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이전의 가치; P_v : 노동자 한 사람에 대한 임금수준; \overline{P}_v : 기술적 구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이전의 임금수준; Q_c : 불변자본 요소들의 수량; Q_v : 노동자의 수.)

$$(2.2) \quad \text{가치구성: } \frac{c}{v} = \frac{P_c Q_c}{P_v Q_v} = \frac{P_c}{P_v} \frac{Q_c}{Q_v}$$

$$(2.3) \quad \text{유기적 구성: } \frac{\overline{P}_c Q_c}{\overline{P}_v Q_v} = \frac{\overline{P}_c}{\overline{P}_v} \frac{Q_c}{Q_v}$$

$$(2.4) \quad \text{기술적 구성: } \frac{Q_c}{Q_v}$$

이제 공식 (2.1)의 $\frac{c}{v}$ 를 공식 (2.2)로 대체한다면, 연간이윤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5) \quad r = \frac{T(\frac{t}{T})(\frac{s}{v})}{\frac{P_c}{P_v} \frac{Q_c}{Q_v} + 1}$$

資本蓄積過程에서 자본은 相對的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勞動生産性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이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다루는 기계나 원료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의 기술적 구성($\frac{Q_c}{Q_v}$)이 상승하기 마련이다. 이 상승하는 기술적 구성은 불변자본 요소들의 가치와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가치구성을 상승시킬

것인데, 이 가치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frac{\overline{Pc}}{Pv} \frac{Qc}{Qv}$)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기계나 원료 및 노동자의 生活手段의 가치가 저하하기 마련이므로(비록 不均等하게 저하한다 하더라도), 기술적 구성의 상승이 가치구성을 어떻게 변동시킬지는 $\frac{Pc}{Pv}$ 와 $\frac{Qc}{Qv}$ 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 있을 것이다.⁽⁵⁾

2.2. 新리카도學派

新리카도學派(neo-Ricardians)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윤율의 공식에서 자본의 연간회전수를 빼버리면 $r = \frac{s}{c+v}$ 가 된다. 만약 노동자가 임금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면, $r = \frac{s+v}{c}$ 가 될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最高利潤率’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살아있는 노동의 사용량이 이것에 의해 운동되는 대상화된 노동량—즉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양—에 비하여 점점 감소”[Marx(2004a, p. 255)]한다고 ‘假定’했기 때문에, ‘최고’ 이윤율은 저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이윤율이 저하한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적인 이윤율($\frac{s}{c+v}$)이 저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frac{s}{c+v} < \frac{s+v}{c}$ 이지만, 그렇다고 후자가 저하하더라도 전자가 상승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최고이윤율이 저하하는 상황에서도 그 아래에 있는 현실적인 이윤율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계속 상승할 수도 있다. 이리하여 신리카도학파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기껏해야 최고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예측할 뿐이고 현실적인 이윤율의 동향에 관해서는 어떤 예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Hodgson(1974), Himmelweit(1974), Steedman(1977)].

신리카도학파의 주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노동의 사용량과 이것에 의해 운동되는 대상화된 노동량”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들은 이것이 생산의 技術的 條件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frac{c}{v+s}$ 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본축적과정에서 자본의 기술적 구성과 유기적 구성이 점차적으로 상승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유기적 구성의 逆數인 최고이윤율($\frac{v+s}{c}$)은 점차적으로 저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몇 가지 중요한 오류가 여기에 있다. 첫째로, 살아있는 노동은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을 모두 포괄하며 이것의 필요량은 생산의 기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5) 자본의 기술적 구성, 유기적 구성 및 가치구성을 위와 같이 깨끗하게 정리한 것은 Fine and Harris(1979)의 공헌이다. 이 세 개의 개념들은 調査(inquiry)의 과정에서는 가치구성 → 유기적 구성 → 기술적 구성으로 나아가며, 發表(presentation)의 과정에서는 기술적 구성 → 유기적 구성 → 가치구성으로 나아간다. 현실적인 숫자 예는 김수행(2004, pp. 148-150)을 보라.

자본가는 이 필요한 살아있는 노동량을 $(v + s)$ 를 주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v 만을 주고 구매한다는 점이다. 리카도가 勞動과 勞動力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잉여가치의 源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던 오류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상승 경향이 있다고 말한 資本의 유기적 구성은 투자된 生産資本(productive capital)에 관한 것이며, 공식 (2.3)을 가리킨다. 그런데 신리카도학파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frac{c}{v+s}$ 로 표시하는 것은 자기들의 生産價格(price of production)方程式 때문이다. $P = (PA + wL)(1 + r)$.⁽⁶⁾ 이 방정식에서 자본투자총액은 $(PA + wL)$ 이고, 자본의 구성은 $\frac{PA}{wL}$ 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로부터 $\frac{c}{v+s}$ 로 가는 것은 매우 쉽다. 왜냐하면 이 방정식에서는 모든 노동시간($L =$ 필요노동 + 잉여노동)이 보상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자본가들 사이에 분배될 이윤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노동력의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고 노동자로 하여금 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을 넘어서는 노동(잉여노동)을 시켜 이윤을 얻는다는 마르크스의 착취이론은 여기에서 찾을 수 없다.

둘째로, 자본의 기술적 구성(공식 (2.4))과 유기적 구성이 상승한다고 현실의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면 모든 상품들(노동력도 포함)의 가치가 (균등하거나 불균등하게) 저하하기 때문에 이윤율을 구성하는 잉여가치율(s/v)과 자본의 가치구성(및 자본의 연간회전수)이 변동하므로 이윤율이 저하할 것인가, 상승할 것인가, 또는 변하지 않을 것인가는 이론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다.

2.3. 우노(宇野)學派

우노코조(宇野弘藏)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본적으로 生産力を 증진시키는 생산방법의 발전은 이윤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력의 증진은 생산수단과 生活手段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때문에...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기술적 구성보다 작은 비율로 상승한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까지도 잉여가치율의 同時的 上昇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에, 생산력의 증진에 의해 시발된 이윤율의 저하는 완화된다. 이런 상쇄요인들 때문에 마르크스가 부른 바와 같이 이윤율 저하 '傾向의 法則'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Uno(1977, p. 87)].⁽⁷⁾

(6) P : 상품가격의 벡터; A : 투입물의 매트릭스; w : 시간당 임금수준; L : 총노동시간의 벡터; r : 평균이윤율. 임금이 後拂된다고 가정하면 이 방정식은 $P = PA(1 + r) + wL$ 로 변한다.

(7) 인용문에서 우노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기술적 구성보다 작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말한 것은 공식 (2.3)과 공식 (2.4)에 비추어 보면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유기적 구성은 기술적

우노는 『자본론』 제3권 제3편이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동시에’ 생기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이윤율의 상승 경향을 각각 제13장과 제14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정하면서도,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이윤율의 상승 경향보다 수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윤율은 경향적으로 저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노학파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상승 경향의 크기를 이론적으로 比較해 저하 경향이 優勢하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없다.⁽⁸⁾ 다만 우노학파는 마르크스가 제14장 첫 머리에서 밝힌 다음 문장을 인용할 뿐이다.

지난 30년 동안[1835-1865: 역자] 사회적 노동의 生産性이 이전의 모든 시대에 비해 뚜렷하게 발달한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특히 사회적 생산과정 전체에 참가하는 固定資本—진정한 의미의 기계 이외에도—의 거대한 규모를 고려한다면, 이전의 경제학자들을 사로잡았던 문제—즉 이윤율의 저하를 설명하는 문제—대신에 그 반대의 문제(즉 왜 이 저하가 더 큰 규모이거나 더 급속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쇄요인들(counteracting factors)이 작용하여 그 一般法則의 효과를 抑制하고 取消하여 그 법칙에 하나의 傾向(tendency)일 뿐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틀림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경향적 저하(tendential fall)라고 묘사한 것이다[Marx(2004a, p. 277)].

이 인용문은 현실의 이윤율이 대폭 저하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저하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쇄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고,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이윤율의 상승 경향(즉 상쇄요인들)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를 항상 압도한다는 이론을 발표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2.4. 根本主義者(fundamentalists)

근본주의자에 의하면, 자본은 상대적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절약적 기술혁신을 도입하기 때문에 자본의 기술적 구성($\frac{Q_c}{Q_v}$)은 점점 더 고도화되는데, 이런 취업노동자의 상대적·절대적 감소는 잉여가치 생산에 극복할 수 없는 限界(limit)를 만들어낸다. 결국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더라도 이윤율은 저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구성과 같은 비율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본의 가치구성이 기술적 구성보다 작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말하더라도, 공식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상대적인’ 가치 변동에 따라 이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8) 마르크스도 현재의 『자본론』 제3권 제3편에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

[Rosdolsky(1977), Yaffe(1973), Cogoy(1973), Shaikh(1978), 富塚良三(1960)].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연간이윤율은 공식 (2.1)과 같은데, 연간에 생산되고 실현된 잉여가치(s)는 취업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하는 잉여노동(k)에 취업노동자의 수(N)를 곱한 것과 같다. $s = kN$. 그런데 N 의 감소를 k 의 증가로 보상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노동자 한 사람으로부터 착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잉여노동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하루에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투하총액($c + v$)은 증가하는데도 s 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저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도 마르크스가 『자본론』 제1권 제11장(과 제3권 제1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에 의거하고 있다.

노동자의 수(또는 투하한 가변자본의 크기)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또는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補償하는 데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노동력의 가치가 어떻든(즉 노동자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한 노동자가 매일 생산할 수 있는 總價値는 24노동시간이 대상화되는 가치보다 항상 적을 것이다. 만약 대상화된 24노동시간의 화폐적 표현이 12원이라고 한다면, 총가치는 항상 12원보다 적을 것이다. 노동력 자체를 재생산하기 위해(또는 노동력을 구매하는데 투하한 자본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매일 6노동시간이 필요하다는…가정에 따르면, 100%의 잉여가치율(즉 12시간 노동일)로 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1,500원의 가변자본은 매일 1,500원(또는 6시간 \times 500명)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그런데 매일 200%의 잉여가치율(즉 18시간 노동일)로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0원의 자본은 겨우 600원(또는 12시간 \times 100명)의 잉여가치량을 생산할 뿐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總價値生産物(즉 투하한 가변자본 더하기 잉여가치)은 결코 매일 1,200원(또는 24시간 \times 100명)에 달할 수 없다. 平均勞動日의 절대적 한계—이것은 본래 24시간보다 항상 짧다—는 가변자본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絶對的 限界, 또는 착취되는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력의 착취도의 제고에 의해 보상하는 것의 절대적 한계를 이루고 있다[Marx(2001a, pp. 410-411)].⁽⁹⁾

‘평균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로부터 자본의 기술적·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결국 이윤율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주장은 이윤율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저하’를 예측하는 것에

(9) 동일한 이야기가 제3권 제15장(p. 297)에도 나온다.

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본의 현실적인 이윤율의 변화와 이것에 대한 자본의 대응을 연구하는 것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 현실의 이윤율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저하’에 부닥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資本一般 (capital-in-general)의 차원에서는 24시간보다 작은 평균노동일이 잉여가치의 최대량을 제한하지만, 多數資本(many capitals)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본이 노동생산성과 노동강도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고 또한 이 차이가 변동한다면,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생산성과 강도를 가진 노동’ (이것이 가치의 실체를 이루는 노동이다)이 달라지며, 따라서 주어진 노동시간이 창조하는 가치량과 잉여가치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일의 길이가 불변인 경우, 強度가 높아진 하루의 노동은 증대된 가치로, 그리고 (화폐가치가 불변인 경우에는) 더욱 많은 화폐로 나타날 것이다. 1노동일에 창조되는 가치는 그 강도가 社會的 標準強度로부터 이탈하는 정도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하여 주어진 노동일은 이제는 더 이상 불변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可變의 가치를 창조하게 된다. 예컨대 보통 강도의 12시간 노동일에 창조되는 가치는 6원이지만, 강도가 더 높아지면 같은 12시간 노동일에 창조되는 가치가 7원, 8원, 또는 그 이상으로 된다[Marx(2001b, p. 706)].

또한 가변자본의 연간회전 수를 고려하게 되면, $s = kN$ 에서 N 은 연간 취업자 수가 되며, 이것은 현재의 실질적인 취업자 수(n)와 가변자본의 연간회전 수(t)를 곱한 것과 같게 된다. 즉 $s = kN = knt$. 만약 자본의 가치증식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 n 을 감소시켜 가변자본 투자액을 축소하면서도 t 를 증가시킴으로써⁽¹⁰⁾ 연간 취업자 수(N)와 s 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Kay(1976)(1979)], 근본주의자들의 주장— n 의 절대적 감소와 k 에 대한 절대적 한계가 s 를 감소시킨다—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2.5. Fine과 Harris

이들은 『자본론』 제3권 제3편을 가장 논리일관하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3장(법칙 그 자체)과 제14장(상쇄요인들)은 모두 자본축적에 따른 자본의

(10) t 가 증가하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노동강도의 강화가 자본의 생산시간(자본이 생산영역에 묶여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통신과 수송의 개선이 자본의 유통시간(자본이 유통과정에 묶여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이다.

기술적 구성의 상승이 만들어내는 効果들(effects)이다.

나. ‘법칙 그 자체’는 자본의 기술적·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일으키는 생산영역의 ‘직접적’ 효과(예: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취업노동자의 상대적·절대적 감소)에 의거하고 있다. 공식 5에서 $\frac{Q_c}{Q_v}$ 의 상승이 r 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제13장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설명한다.

다. ‘상쇄요인들’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이 만들어내는 ‘간접적’ 효과들이다. 기술적 구성의 상승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됨으로써, 제품(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시장에서 저하한 가치로 거래되고 노동력의 가치가 노자투쟁을 통해 저하하는 것 등이 이윤율에 미치는 효과들이다. 예컨대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노동착취도(잉여가치율)의 증대, 유동자본의 연간회전 수의 증가 등이 그러하다. 결국 제14장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이 교환영역과 분배영역에도 영향을 미쳐 자본투하총액($c + v$)을 감소시키고, $\frac{s}{v}$ 를 증대시키며, t 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t/T 도 증가시킴으로써 r 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설명한다. 결국 이윤율의 상승 경향을 제기한다.

라. ‘법칙 그 자체’와 ‘상쇄요인들’의 구분은 단순한 범주(simple category)로부터 복잡한(complex) 범주로 上向하는 發表의 論理的 順序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법칙 그 자체’를 교환과 분배를 捨象한 생산영역에서 도출한 이유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적대적 관계에 의거한 잉여가치의 생산이 생산·교환·분배의 統合水準에서 논의되는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에 前提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마.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이윤율의 상승 경향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抽象水準의 對立物의 統一이라고 말할 수 있다.⁽¹¹⁾ 따라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의 현실적인 저하를 예측하는 법칙이 아니며, 이 법칙은 두 대립물 사이의 복잡한 모순들을 통해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이 효과 중 하나가 공황(crisis)인데, 공황은 모순들이 격렬하게 폭발하는 형태이면서 그 모순들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형태이다[Fine and Harris(1979, pp. 73-79)].

파인과 해리스의 해석은 『자본론』 제3권 제3편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논리일관하게

(11) 그렇다면 왜 마르크스는 이윤율의 상승 경향(즉 ‘상쇄요인들’)을 ‘법칙 그 자체’로 하면서 제3편을 ‘이윤율 상승 경향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지 않았느냐고 Hodgson(1974)이 빈정거렸는데, 이에 대해 파인과 해리스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라는 명명이 마르크스의 경제학 방법론—마르크스는 발표의 순서에서 단순한 범주로부터 복잡한 범주로 상향하며, 경제를 구성하는 생산·교환·분배에서 생산영역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고찰할 수 있게 하며, 제15장(법칙의 내적 모순들의 전개)의 무게를 한층 더 높였다. 그러나 이처럼 수미일관하고 논리정연하게 마르크스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마르크스의 意圖에 맞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자본론』 이전의 저작들에서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어떻게 세우려고 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벤과 로렌스의 해석의 ‘正當性’을 평가하려고 한다.

3. 『資本論』 以前の 著作들에 있는 利潤率 低下 傾向의 法則

3.1. *Grundrisse*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草稿로 쓴 1857-58년의 원고는 *Grundrisse*(『政治經濟學批判 要綱』)라는 이름으로 1973년에 Penguin Books에 의해 英譯 出版되었는데, 그 뒤 모스크바의 Progress Publishers가 1986년과 1987년에 Marx & Engels, *Collected Works*의 Volume 28과 29로 다시 영역 출판했다.

*Grundrisse*는 III. Chapter on Capital의 Section Three: Capital as Bearing Fruit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을 다루고 있다.⁽¹²⁾ 두 개의 전형적인 언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즉 잉여가치율: 역자]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윤율은 살아있는 노동과 교환되는 자본부분[즉 가변자본: 역자]과 원료와 생산수단의 형태로 있는 자본부분[즉 불변자본: 역자] 사이의 비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살아있는 노동과 교환되는 부분이 감소하면 이윤율은 감소하게 된다. 자본으로서의 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직접적 노동보다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즉 상대적 잉여가치—자본의 가치창조력—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윤율은 더욱 더 감소한다[Marx(1987, p. 131)].

노동의 생산력(productive power)이 증대함에 따라 이윤율은 저하한다. 노동의 생산력이 증대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a) 노동자가 자본에게 주는 상대적 잉여가치 또는 상대적 잉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 (b) 노동능력(labour capacity)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 (c) 대상화된(objectified) 노동과 전제된(preposited) 노동으로서 생산과정에 참가하는 자본부분에 비해 살아있는 노동과 교

(12) 松尾純(1984)을 참조하라.

환되는 자본부분이 감소하는 것...이 법칙이 이윤율의 저하 경향(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이다[Marx(1987, p. 147)].

위의 두 인용문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원인이자 결과인 자본의 기술적·유기적 구성의 상승이 자본의 가치구성과 잉여가치율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두 개의 대립적인 경향 중 어느 것이 우세한가를 연구하지 않은 채 자본의 가치구성의 상승으로부터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도출하고 있다. 더욱이 여기에서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이 당연히 가치구성을 상승시킨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 (2.2)와 공식 (2.4)에서 보듯이 잘못된 전제이다.⁽¹³⁾

그 뒤 마르크스는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 지닌 意義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모든 면에서 이 법칙은 근대의 정치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고 가장 복잡한 관계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이 법칙은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아무도 의식적으로 이 법칙을 세우지 못했다[Marx(1987, p. 133)].

이 문장은 『자본론』 제3권 제13장(법칙 그 자체)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되고 있다.

이 법칙은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이전의 경제학자는 아무도 이 법칙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 현상[이윤율의 점진적 저하: 역자]을 보고 그것을 해명하려고 온갖 모순적인 시도를 하면서 고민하였다. 그런데 이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해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애덤 스미스 이래의 정치경제학 전체는 이 수수께끼[이윤율의 점진적 저하: 역자]의 해결을 둘러싸고 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 이래의 각종 학파들 사이의 차이는 이것의 해결을 위한 시도의 다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정치경제학은 不變資本과 可變資本을 구별하기 위해 어설픈 노력을 하였지만 그 구별을 분명히 하지 못하였으며, 종래의 정치경제학은 剩餘價値를 이윤과 구분되는 어떤 것으로 제시하지를 못하였고, 또한 이윤의 각종 구성부분들(이것들은 산업이윤·상업이윤·이자·지대의 형태로

(13) 자본의 '가치' 구성과 이윤율 사이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아래에서 고찰하는 『잉여가치학설』의 세르불리에 비판에서 가장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서로 自律的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과는 구별되는 순수형태의 이윤일반(profit in general)을 제시하지도 못하였으며, 종래의 정치경제학은 자본의 有機的 構成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분석해 본 적도 없으며, 따라서 一般的 利潤率의 형성을 분석하지도 못하였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치경제학이 이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Marx(2004a, pp. 255-256)].

위의 두 인용문에서는 애덤 스미스나 데이비드 리카도 등이 이윤율의 현실적인 저하를 보면서도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의 현실적인 저하를 이론화하는 것에 큰 목적의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쇄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로부터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도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Grundrisse*에 있는 이윤율 저하 경향이 바로 그러하며, 『자본론』 제13장(법칙 그 자체)도 바로 그러하다.

3.2. 1861-63년의 草稿 「第3章 資本과 利潤」

1861-63년의 초고 중 『잉여가치학설사』(Theories of Surplus Value)보다 먼저 쓴 것으로 보이는 「제3장 자본과 이윤」에는 제7절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전에 따른 이윤율 저하의 일반법칙’이고 그 뒤의 雜錄(miscellanea)은 ‘이윤율의 감소’와 ‘이윤율의 저하’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다[Marx and Engels(1991)].

이 글에서 마르크스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한편으로는 자본의 기술적·유기적 구성을 상승시켜 이윤율을 저하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잉여가치율을 증가시켜 이윤율을 상승시킨다고 말하면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이윤율의 상승 경향을 압도하여 이윤율은 점차로 저하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한다. 이 증명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에서 검토한 근본주의자의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농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사회평균적인 노동생산성 향상보다 낮아 노동자의 주요 생활수단인 농산물의 가치가 상품 일반의 가치만큼 저하하지 않음으로써 잉여가치율의 증가가 자본의 가치구성의 고도화를 능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첫째의 증명 방법부터 살펴보자.

생산력의 발달이 취업노동자의 필요노동부분(지불노동부분)을 단축하는 한, 그것은 잉여가치율을 높여 잉여가치량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 총수를 감소시키는 한, 잉여가치율에 곱해야 하는 變數를 감소시킴으로써

잉여가치량을 감소시킨다. …이윤율이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잉여가치율(또는 노동 착취도)이 노동에 투자한 자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오직 일정한 한계(limits) 안에서만 가능하며, 오히려 지배적인 것은 이윤의 감소 경향—또는 잉여가치율의 상승과 나란히 나타나는 잉여가치량의 상대적 감소—이다[Marx(1991, p. 109, 110)].

이 ‘일정한 한계’를 증명하기 위해 숫자 예를 드는데, 이 예는 『자본론』 제3권 제15장에 있는 것과 거의 같다.

하루에 12시간을 노동하는 2명의 노동자는—공기만을 마시고 살 수 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 전혀 노동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하루에 각각 2시간만을 노동하는 24명의 노동자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분량의 잉여노동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보면 노동자 수의 감소를 노동착취도의 증대에 의해 보상하는 것에는 넘을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는 이윤율의 저하를 저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다[Marx(2004a, p. 297)].

그렇지만 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잉여가치율의 상승에 의해 이윤율의 저하가 저지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궁극적으로’ 나타날 경향이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을 비판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현실적인 의미를 전혀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부문들 사이에 勞動生産性이 不均等하게 발전한다는 사실로부터 어떻게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증명하는가?

생산력의 발달은 (노동자의 소비에 들어가는 생활수단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하는) 각종 산업분야에서 매우 불균등해 발달 속도가 불균등할 뿐 아니라 전혀 반대로 발달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므로, 또한 노동생산성은 자연조건에 묶여 저하할 수도 있으므로…평균잉여가치는 (가장 뛰어난) 개별산업분야의 생산력 발달로부터 기대하는 수준에 훨씬 미달할 것이다. 이것은, 잉여가치율이 상승한다 하여도 가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상승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만약 가변자본이 固定資本에 비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는 산업분야들이…동일한 비율로 자기들의 생산물을 노동자들의 消費 項目으

로 넣을 수 있다면, 잉여가치율의 상승률과 가변자본 비중의 감소율이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소비 항목에 들어가는 공산품과 농산품의 비중은 전혀 그렇지 않다[Marx(1991, p. 131)].

농업에서는 자연적 조건이 크게 작용하며 노동수단을 다른 산업분야에서보다 덜 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에서 이룩하는 노동생산성의 발달은 다른 분야들보다 훨씬 뒤떨어지며, 따라서 농산품의 가치 저하율은 다른 상품들의 가치 저하율보다 훨씬 작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이 주로 農産物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 저하율은 다른 상품들의 가치 저하율보다 훨씬 작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잉여가치율의 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의 사회적 평균 상승률(또는 가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율)에 미치지 못한다. 이 결과로 이윤율은 저하하게 된다.

이 ‘생산성의 불균등 발전’ 논리는 아래에서 논의할 『잉여가치학설』의 리카도 비판에서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농업의 생산성이 기타 산업의 생산성에 비해 항상 낮다는 잘못된 전제, 그리고 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이 자본의 가치구성의 상승률과 동일하다는 불확정적인 전제(동일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frac{Q_c}{Q_v}$ 의 상승뿐 아니라 $\frac{P_c}{P_v}$ 의 변동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론의 차원에서는 이런 변수들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를 가지고 있다. 또한 농산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저하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덜 저하한다면, 자본의 가치구성($\frac{c}{v}$)도 당연히 이것의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이다.⁽¹⁴⁾ 따라서 공식 (2.1)에서 $\frac{c}{v}$ 의 상승률이 $\frac{s}{v}$ 의 상승률보다 크기 때문에 이윤율은 이론적으로 명백하게 저하한다고 결론내릴 수가 없다. ‘생산성의 불균등 발전’은 『자본론』 제3권 제15장에도 언급되고 있지만,⁽¹⁵⁾ 이것에 의거해 잉여가치율의 증가율이 자본의 가치구성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이리하여 이윤율이 저하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없다.

1861-63년의 초고 「제3장 자본과 이윤」에는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이론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노동자 수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증가로 보상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14) 3.3.에 있는 『잉여가치학설』의 리카도 비판을 참조하라.

(15) “노동생산성의 발전은 각종의 산업분야들 사이에서 매우 불균등하며, 그리고 (정도에서 불균등할 뿐만 아니라) 가끔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평균이윤(=잉여가치)의 양은 가장 선진적인 산업분야의 생산성 발달로부터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다” [Marx(2004a, p. 312)].

는 논리와, ‘생산성의 불균등 발전에 따라 잉여가치율의 증가율이 자본의 가치구성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가 함께 있다. 왜 두 개의 논리가 함께 있는가에 대해 松尾純(1984)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의 ‘限界論’은 이윤율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저하를 가리키므로 현실의 이윤율 저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둘째의 ‘不均等發展論’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松尾純은 자기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처럼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상승 경향을 각각 다른 차원에서 이론화했다고 본다면, 위의 두 개의 논리는 전혀 상호보완성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3.3. 『剩餘價值學說史』

『잉여가치학설사』의 영역판은 모스크바의 Progress Publishers에 의해 세 권(I 1963: II 1968: III 1971)으로 출판되었는데, Marx & Engels, *Collected Works*에는 마르크스의 1861-63년의 경제학 초고로 Volume 30-33에 실려있다.

이 초고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리카도의 이윤율 저하 법칙을 비판하는 곳 (Volume 32), 호지스킨(T. Hodgskin)의 자본축적론을 찬양하는 곳 (Volume 32), 그리고 세르불리에(A. Cherbuliez)의 자본구성을 비판하는 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먼저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이윤율 저하 법칙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리카도에게는 利潤率과 剩餘價值率이...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윤의 영구적인(permanent) 저하 또는 이윤의 저하 경향은 잉여가치율의 영구적인 저하 또는 저하 경향을 일으키는 동일한 원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 원인들은 무엇인가? 노동일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노동자가 공짜로 자본가를 위해 일하는 부분[잉여노동: 역자]이 감소하는 것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부분[필요노동: 역자]이 증가할 때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노동[‘노동력’]이 옳다: 역자]이 그것의 가치대로 지불된다고 가정하면) 노동자가 임금을 지출하는 생활수단인 生必品の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노동생산력의 발달로 공산품의 가치는 계속 저하하고 있다.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는 생활수단의 주요 구성분인 食品(food)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은 농업이 점점 덜 생산적이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며, 여기로부터 리카도는 지대의 존재와 증가를 설명한다. 이리하여 이윤의 계속적인 저하는 지대율의 계속적인 증가와 결부된다. 나는 리카도의 지대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이윤율 저하에 관한 그의 설명의 기초의 하나를 붕괴시킨 셈이다. 둘째로 그의 이윤

을 저하는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이 동일하다는 가정,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는 리카도 식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잉여가치율의 저하와 동일하다는 가정에 의거하는데, 이 가정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윤율 저하 이론은 끝장이 난 것이다. 잉여가치율이 불변이거나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은 노동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해 감소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윤율의 저하는 노동이 덜 생산적으로 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생산적으로 되기 때문이며, 노동자가 덜 착취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착취되기 때문이다(절대적 잉여[잉여노동: 역자]시간이 증가하거나, 국가가 이것을 저지한다면 상대적 잉여[잉여노동: 역자]시간-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노동력: 역자]의 상대적 가치의 저하와 분리될 수 없다-이 증가한다). 이렇게 본다면 리카도의 이윤율 저하 이론은 두 개의 잘못된 전제에 의거하고 있다. (1) 지대의 존재와 증가가 농업 생산성의 저하에 의해 결정된다는 잘못된 전제. (2) 이윤율은 상대적 잉여가치율이고 오직 임금의 증감에 반비례하여 저하하거나 상승한다는 잘못된 전제[Marx(1989b, pp. 73-74)](밑줄은 역자의 것).

리카도는 이윤과 임금을 논의할 때 자본가의 모든 자본이 임금에만 투자되었다고 가정했으며, 그리고 노동일이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윤율($\frac{s}{c+v}$)은 잉여가치율($\frac{s}{v}$)과 동일할 수밖에 없었고 잉여가치율은 '상대적 잉여가치'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가정 위에서 리카도는 이윤율(사실은 잉여가치율)의 저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이다. 즉 사회의 진보와 자본의 축적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리하여 優等地로부터 劣等地로 경작이 확대되는데, 수확체감의 법칙(농업 생산성의 끊임없는 감소)에 따라 우등지에서는 지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또한 식품의 가치가 끊임없이 상승함으로써 임금은 끊임없이 인상하게 된다. 결국 잉여가치율이 저하하는데, 이것을 리카도는 이윤율의 저하라고 본 것이다.

마르크스는 『잉여가치학설서』에서 리카도의 지대이론을 비판하면서, (1) 차액지대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등지로부터 열등지로 경작이 확대될 필요가 없고, 열등지로부터 우등지로 경작이 확대되어도 좋다; (2) 차액지대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반드시 인상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3) 리카도가 고찰하지 않은 절대지대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농산물의 가치까지 인상시키는 요인이다 등등을 제시함으로써[Marx(1989, pp. 457-578)] 리카도의 이윤율 저하 이론의 주춧돌의 하나를 빼버렸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는 “잉여가치율이 불변이거나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저하하는 것은 노동생산력의 발달에 따라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해 감소하기 때문이

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리카도가 농업과 공업 사이의 불균등발전이라는 ‘역사적 현상’으로부터 농업 생산성의 상대적 저하 → 농산물의 가치 상승 → 임금의 상승 → 잉여가치율의 저하=이윤율의 저하라고 추론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는 자기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역사적 현상은 製造業(사실상 진정으로 부르주아적인 산업분야)이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농업은 더 생산적으로 되었지만 공업과 같은 속도로는 되지 않았다. 제조업에서는 생산성이 10배 증가했는데, 농업에서는 2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농업이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工產品의 가치에 비해 상승하고 따라서 지대가 증가한다는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카도가 생각하듯이, 농산물 가격의 상대적인 상승 때문에 임금이 올라서 이윤율이 저하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은 임금항목에 들어가는 생산물의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가 아니라) 농업이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이기 때문에, 이윤율(사실은 잉여가치율)이 제조업의 생산력 발달과 동일한 속도로 상승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하다.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은 공업의 발달에 비해 작은 편이다[Marx(1989a, p. 254)](밑줄은 역자의 것).

마르크스에 의하면, 농업의 생산성 발달에 의해 생활수단의 주요 구성분인 食品의 가치가 저하하고, 이것이 임금을 인하시켜 잉여가치율을 상승시키는데, 농업의 생산성 발달이 역사적으로 보아 제조업의 그것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의 상승 정도는 제조업의 생산성 발달 정도나 이것에 비례하여 진행되는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 감소 정도보다는 작다. 이것은 이윤율 공식에서 $\frac{s}{v}$ 의 상승률이 $\frac{c}{v}$ 의 상승률보다 작기 때문에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이미 1861-63년의 초고 「제3장 자본과 이윤」에서 나왔지만 여기에서 더욱 분명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frac{c}{v} = \frac{P_c Q_c}{P_v Q_v} = \frac{P_c}{P_v} \frac{Q_c}{Q_v}$ 인데, $\frac{P_c}{P_v}$ 는 감소하고 $\frac{Q_c}{Q_v}$ 는 증가하는 마당에서 $\frac{c}{v}$ 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론」 제3권 제3편에서는 잉여가치율 상승률과 자본의 가치구성 상승률을 서로 비교하여 이윤율의 저하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호지스킨의 자본축적론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평을 들어보자. 호지스킨은 자

본이 축적됨에 노동자 한 사람에게 할당되는 자본의 규모가 예컨대 50원에서 100원으로 증가하는데 이 경우 자본이 이전과 동일한 이윤율을 얻으려면 노동자 한 사람은 두 배의 잉여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¹⁶⁾ 그러나 노동자 한 사람이 제공할 수 있는 잉여노동의 크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 따라서 이윤율은 저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리하여 마르크스는 호지스킨이 “스미스나 리카도보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설명하는 데 더욱 접근했다”[Marx(1989b, p. 445)]고 평가한다. 마르크스는 호지스킨이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연장이나 노동강도의 강화에는 일정한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윤율의 저하와 관련해 ‘노동자의 수의 감소를 잉여가치율의 상승으로 상쇄할 수 없다’는 점과 ‘잉여가치율의 상승은 자본의 가치구성의 고도화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Marx(1989b, pp. 432-434)].

끝으로 세르불리에에 관한 논평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함에 따라 기계와 원료에 투자하는 자본부분은 증가하고 임금에 투자하는 자본부분은 감소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 문제만을 램지(G. Ramsay)와 세르불리에에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이윤율을 저하시키는가이다[Marx(1991, p. 287-288)].

마르크스는 세르불리에가 이윤율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인 자본의 가치구성($\frac{c}{v} = \frac{P_c}{P_v} \frac{Q_c}{Q_v}$)을 제대로 이론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본의 가치구성이 변화하면 이윤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첫째로,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자본의 기술적 구성($\frac{Q_c}{Q_v}$)이 상승하거나 저하함에 따라 이윤율은 저하하거나 상승한다. 이것은 잉여가치를 낳는 살아있는 노동이 죽은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축적에 따라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상승하며 따라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둘째로, 자본의 기술적 구성은 변하지 않은 채 불변자본 요소들의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 노동력의 가치가 내리거나 오르는 경우, 불변자본 요소들과 노동력의 가치가 균등하거나 불균등하게 변하는 경우, 이윤율은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본축적에 따른 이윤율의 변화 경향은 제시되지 않

(16) 호지스킨은 이것을 ‘자본은 複利(compound interest)로 축적되면서 노동자에게 복리의 이윤을 낳을 것을 요구한다’고 묘사하고 있다[Marx(1989b, pp. 431-445)].

고 있다. 셋째로, 자본의 회전시간이 변화하면 투하자본의 규모, 투하자본의 구성, 연간의 이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간이윤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자본의 회전시간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말한다.

이윤율은 단순히 잉여가치를 투하자본으로 나눈 것이 아니다. 이때의 잉여가치는 일정한 시간 안에, 일정한 回轉時間에 실현된 잉여가치량이다.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사이의 차이가 특정의 자본이 일정한 시간 안에 낳는 잉여가치량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윤율이 변하게 된다.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로 (실현된 잉여가치에 대비한) 자본투자액의 차이: 둘째로 자본투자액이 이윤과 더불어 되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Marx(1991, p. 312)].

자본의 회전시간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은 공식 (2.1)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이 영향을 『자본론』 제3권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제1편 제4장의 제목은 ‘회전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이지만 엥겔스가 쓴 것이고, 제3편 제14장(상쇄요인들)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¹⁷⁾ 그리고 세르불리에에 관한 논평에서도 자본축적에 따라 자본의 회전시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윤율의 변화 경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4. 맺 음 말

마르크스는 『資本論』 이전의 저작들에서 정치경제학의 주요 과제인 ‘利潤率 低下 傾向’을 이론화하려고 노력했다. 자본가들이 상대적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동생산성 향상의 원인이자 결과인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는 한편으로는 노동력을 불변자본 요소들로 대체함으로써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들의 가치를 저하시켜 잉여가치율을 높이고 투하자본 총액을 절약하게 하며 자본의 회전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을 낳는다. 이 두 개의 대립하는 경향 중 어느 것이 우세하냐를 판단해 이윤율이 분명히 이론적으로 저하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제3장 자본과 이윤」 그리고 『잉여가치학설사』 등에

(17) 물론 『자본론』 제2권 제2편(자본의 회전) 제15장(회전시간이 투하자본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과 제16장(가변자본의 회전)에서는 자본의 회전시간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이 잘 분석되고 있다.

보인다.

그러나 『자본론』 제3권의 제1초고를 쓰기 이전에 자본의 기술적 구성, 유기적 구성 그리고 가치구성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본론』 이전의 저작에서 시도한 것과 같은 두 대립하는 경향들의 단순한 ‘합계’를 통해 이윤율의 현실적 저하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다. 이리하여 자본축적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이윤율의 저하 경향(『자본론』 제3편 제13장)과 이윤율의 상승 경향(제14장)으로 확실히 나누어 버림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경향들을 단순히 합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 뒤 이 대립하는 경향들의 상호 작용이 자본축적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제15장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2.5.에서 소개한 파인과 해리스가 마르크스의 利潤率 低下 傾向의 法則(제3권 제3편)을 마르크스의 방법론에 따라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15장은 마르크스 공황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이미 쓴 바가 있기 때문에[김수행(1988, pp. 176-196)]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전화: (02)880-6374

팩스: (02)886-4231

E-mail: soohaeng@plaza.snu.ac.kr

參 考 文 獻

김수행(1988): 『『자본론』연구1』, 한길사.

_____ (2004): 『『자본론』의 현대적 해석』, 제1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富塚良三(1960): “資本蓄積と利潤率の傾向的低落,” 『經濟評論』, 6월.

松尾純(1984a): “利潤率低下法則論の形成過程(1):資本構成高度化と剩餘價值率上昇の對抗を中心として,” 『經濟經營論集』(桃山學院大學), 25, 4.

_____ (1984b): “利潤率低下法則論の形成過程(2):草稿「第3章 資本と利潤」を中心として,” 『經濟經營論集』(桃山學院大學), 26, 3.

_____ (1993): “『資本論』第3部「第1草稿」における利潤率低下法則論の形成,” 『經濟經營論集』(桃山學院大學), 35, 3.

佐藤金三郎(1971): “『資本論』第3部原稿について,” 『思想』, 1・2, 4월과 6월.

Cogoy, Mario(1973): “The Fall of the Rate of Profit and the Theory of Accumulation,” *Bulletin of the Conference of Socialist Economists(BCSE)*, Winter.

Fine, Ben, and Laurence Harris(1979): *Rereading Capital*, Macmillan(김수행 옮김(1985): 『현대정치경제학 입문』, 한울).

Himmelweit, Sue(1974): “The Continuing Saga of the Falling Rate of Profit,” *Bulletin of the Conference of Socialist Economists(BCSE)*, Autumn.

Hodgson, Geoff(1974): “The Theory of the Falling Rate of Profit,” *New Left Review*, Mar./Apr.

Kay, Geoffrey(1976): “The Falling Rate of Profit, Unemployment and Crisis,” *Critique*, Spring.

_____(1979): *The Economic Theory of the Working Class*, Macmillan.

Marx(2001a): 『자본론』I(상)(김수행 역, 제2차개역판), 비봉출판사.

_____(2001b): 『자본론』I(하)(김수행 역, 제2차개역판), 비봉출판사.

_____(2004a): 『자본론』III(상)(김수행 역, 제1차개역판), 비봉출판사.

_____(2004b): 『자본론』III(하)(김수행 역, 제1차 개역판), 비봉출판사.

Marx, and Engels(1983): *Letters on ‘Capital’*, New Park Publications.

_____(1986): *Collected Works*, Volume 28, Karl Marx: 1857-61, Progress Publishers.

_____(1987): *Collected Works*, Volume 29, Karl Marx: 1857-61, Progress Publishers.

_____(1989a): *Collected Works*, Volume 31, Karl Marx: 1861-63, Progress Publishers.

_____(1989b): *Collected Works*, Volume 32, Karl Marx: 1961-63, Progress Publishers.

_____(1991): *Collected Works*, Volume 33, Karl Marx: 1861-63, Progress Publishers.

_____(1992): *Gesamtausgabe(MEGA)*, Abt.II, Bd.4, Teil 2, Dietz Verlag Berlin.

Rosdolsky, Roman(1977): *The Making of Marx’s Capital*, Pluto Press.

Shaikh, Anwar(1978):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Crisis Theories,” *U.S. Capitalism in Crisis*, 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cs.

Steedman, Ian(1977): *Marx After Sraffa*, New Left Books.

Uno, Kozo(1980):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Theory of a Purely Capitalist Society*, Harvester Press.

Yaffe, David(1973): “The Marxian Theory of Crisis, Capital and the State,” *Economy and Society*, May.